

겨울 끝자락... 강진청자축제서 봄마중 하세요

‘제51회 강진청자축제’가 올해부터 개최 시기를 겨울로 옮긴다. 축제는 오는 23일부터 3월1일까지 강진군 대구면 일대 고려청자요지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 축제는 ‘흙·사람 그리고 불’을 테마로 전시, 체험, 공연, 부대 행사 등 6대 분야, 44개 행사로 꾸며진다.

군은 그동안 축제를 여름휴가와 방학을 겨냥해 개최해 왔지만 여름철 홍수, 태풍, 폭염 등으로 행사 진행이 어려워 가을로 옮긴 바 있다. 가을은 축제 성수기로 타지자체 축제와 겹치거나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관광객 방문이 줄어들 수가 있어서 겨울 개최로 시기를 변경했다.

편집자주



제51회 강진청자축제가 오는 23일부터 3월1일까지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요지 일대에서 ‘흙·사람 그리고 불’을 테마로 전시, 체험, 공연, 부대 행사 등 6대 분야, 44개 행사로 꾸며진다. 상공에서 바라본 강진청자박물관 일대와 강진만 바다 풍경. **강진군 제공**

●자녀들 겨울방학 끝자락 ‘겨울낭만’ 즐기세요

자녀들의 개학을 앞둔 마지막 일주일인 23일부터 3월1일은 올해 마지막 겨울 낭만을 즐기고 첫 봄마중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

겨울은 청자 제작의 필수요소인 ‘불’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계절이다. 강진에서만 보고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갖춘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다. 군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겨울축제로 새로운 변신’을 시도한 청자축제를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행사로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개막식은 KBC의 ‘개막 축하쇼’와 연결해 진행되며 불의 정령 무용단과 불꽃 공연의 플라보로 대단원의 막을 올린다. 가수 김준수, 강진, 문희옥 등이 출연 예정이다. 청자축제 핵심 테마인 ‘불과 빛’을 이용한 행사가 눈길을 끈다. 청자를 구워 내는 대형 가마에서 불을 지피는 ‘화목가마 불지피기’나 새해 소망을 화목에 적어

장작을 쌓아 태우는 ‘화목장작 태우기’는 불명의 나쁜 분위기를 쫓아내고 ‘화목가마 장작패기’는 행사장을 덥힐 것으로 보인다.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는 눈썰매장과 짚라인 역시 필수 체험 코스다. 짚라인은 어린이용으로 체험료가 1000원이며 사전접수가 가능하다. 빙어잡이 체험과 군밤, 군고구마를 현장에서 구워 먹을 수 있으며 체험료는 5000원이다.

전문가와 눈 조각을 체험하는 ‘눈조각 페스티벌’도 동심을 사로잡는다. 3인 이상 한 조로 선착순 50개 팀을 대상으로 25일 단 하루만 열린다.

디지털박물관 에어돔 텐트에서 펼쳐지는 청자 성형 물레 체험, 청자 코일링 체험 등은 청자축제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체험거리다.

축제 현장에서 즐길 음식도 고심 끝에 선정했다. 남도 맛의 즐거움을 선사할 향토 음식점을 운영하고 떡꼬치나 밤, 마쉬

불·빛 소재 즐길거리 다양 개최 계절 바뀌서 대변신 23일~3월1일까지 이어져

눈썰매·불명·각종 이벤트 MZ세대 겨냥 콘텐츠 눈길 지역사랑상품권 등 증정도



강진청자박물관

멜로우 등을 현장에서 구워 먹으며 쉴 수 있는 일명 불명 캠프도 마련된다. 그릴 존은 소형과 대형 두 가지로 구성돼, 개인과 단체 관광객 모의 편의를 돕는다.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면 5000원의 사용권을 제공받을 수 있다.

●5만원 이상 소비하면 지역사랑상품권 증정

축제기간 동안 축제장은 물론 강진읍 시장에서 5만원 이상 소비하면 5000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 청자축제 참여 인증 사진을 SNS에 올리면 강진읍내에서 팽없는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으며 최대 40만원 상당의 순금 골드바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군은 청자축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우미도록 1300개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강진사랑상품권(9000만원 상당)을 준비했다. 체험은 강진청자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이나 현장 접수가 가능하며 사전접수는 무료이거나 각종 혜택이 많다.

힐링할 수 있는 야외 족욕탕과 하멜 커피 카페도 운영한다. 하멜 커피는 카페에서 원하는 청자컵을 선택해 찾잔을 가져갈 수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폐막식은 군민들이 참여하는 쥐불놀이와 농약대가 함께 등장해 분위기를 띄우고 관광객의 소원을 적은 나무를 태우며 마무리된다.

강진읍 강진군수는 “반백년 전통을 가진 청자축제를 최초로 겨울로 옮겨 개최하는 만큼 겨울의 마지막 낭만과 이른 봄마중을 강진청자축제에서 즐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청자축제는 그동안 전국 최우수축제와 대한민국 대표축제 지정에 이어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을 받는 등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됐다. 강진에는 전국 400기의 청자 가마터 중 절반 수준인 188개가 남아 있는 고려청자의 본산으로 대한민국 국보나 보물급 청자 80%가 강진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김윤복 기자**

강진 청자축제장서 즐기고 인근 관광 명소도 둘러보세요

청자축제장을 둘러본 뒤 둘러볼 만한 명소 또한 많다. 가우도를 비롯해 마량항, 김영랑 생가 등이 대표적이다.

●바다 가르느 짚트랙 짜릿 가우도

강진만의 8개 섬 중 유일한 유인도인 가우도. 가우도는 사방으로 강진만과 무인도를 감상할 수 있다.

해안 경관이 아름답고 섬 내부에 후박나무, 편백나무 군락지 및 곰솔 등 관광 자원이 풍부하다.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출렁다리가 양쪽으로 연결돼 걸어서 섬에 들어갈 수 있고 섬에 도착하면 2.5km 생태탐방로가 조성돼 있어 산책하기 좋다.

다양한 어종이 잡히는 복합낚시공원, 섬 정상에 25m 높이 청자타워에서 출발



가우도

해 짜릿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짚트랙 등을 즐길 수 있다. 짚트랙 총길이 973m로 1분 만에 내려오며 바다위를 나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나폴리 마량항

대한민국 나폴리로 불리는 마량항은 서



마량항 야경

남부 최남단에 위치해 있다. 완도 다도해 및 제주도를 연결하는 청정해역으로, 돛·농어·우럭 등 바다낚시 포인트 중 하나다.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겪을 당시 거북선 1척이 상시 대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유서깊은 만호성터가 남아있다.



김영랑 생가

마량 앞바다에는 까막섬이 수목화처럼 떠 있으며 고금도와 약산도가 든든하게 풍랑을 막아주는 마량포구는 1층 여항으로 꼽힌다.

●강진이 낳은 시문학파 거장 김영랑 생가

다산 정약용과 함께 강진 대표 인물로 손꼽히는 영랑 김윤식 선생. 1903년 1월 16일 강진에서 김종호의 2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영랑 선생은 1950년 9월 29일 작고하기까지 시 80여 편을 발표했는데 그중 60여 편이 창씨개명과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이곳에서 생활하던 시기에 쓴 작품이다.

영랑생가는 1948년 영랑이 서울로 이거한 후 몇 차례 전매됐으나 1985년 강진군에서 매입해 관리해 오고 있다. 생가에는 시의 소재가 됐던 샘, 동백나무, 장독대, 감나무 등이 남아 있으며 모란이 심어져 있다. 영랑생가 뒤편 언덕에 오르면 1년 365일 모란을 감상할 수 있는 세계모란공원이 조성돼있다. **강진=김윤복 기자**